GS칼텍스의 안전경영활동

“무재해 사업장 실현은 물론 어떠한 위기에도 즉각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한 조직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GS칼텍스 허진수 부회장이 ‘16년 5월 창립기념사에서 임직원들에게 강조한 말이다. 이렇듯 GS칼텍스는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방침 아래 모든 안전관리활동을 시행해오고 있다.

특히, 안전경영방침과 업무규정에 기반하여 “Plan-Do-Check-Action Cycle”의 안전경영시스템에 따라 목표 및 계획 수립, 실행, 점검 및 평가, 성과 검토 과정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GS칼텍스는 Safety First Leadership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정직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무재해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다.

**□ 안전경영 운영체계**

GS칼텍스는 안전환경과 관련된 변화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14년 CEO 직속의 CSO(Chief Safety Officer)를 신설하였고, 사업장 안전진단, 사고 근본원인 조사, 위험성평가, 안전환경감사 기능을 전담하는 안전진단팀을 신설하였다. 특히 20년 이상 여수공장에서 근무한 공정전문가, 장치전문가, 전기계전전문가, 안전전문가 및 박사급 임직원들이 협업하여 GS칼텍스의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설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여수공장에 비상대응팀을 신설하고 24시간 산업재해, 환경사고, 자연재해, 적의 공격행위 등 모든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PSM팀에서는 정부의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정책 강화에 따라 회사의 대응 및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PSM 내재화 활동을 활발하게 실천하고 있다.

현재 여수공장에서는 안전담당 팀장과 팀원 90여명이 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비상시에는 약 1,700명의 전 직원들이 사고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지휘본부의 지휘하에 현장대응반(화재진화조직/유출방제조직)을 구성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과 환경,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 GS칼텍스의 안전관리 현황**

GS칼텍스는 예기치 않은 화재발생시 최단시간에 화재를 진압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개의 교대조별로 약 50명씩 총 200명의 1선 비상요원과 100명의 일근사원이 2선 비상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GS칼텍스는 현재 소방장비, 화학소방차, 소방차, 방재선, 소방정, 고소사다리차 및 카고크레인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년 50회 이상 사업장 비상출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위험유해물질(HNS) 유출사고 대비 실질적인 해상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등과 민관합동방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출정보확인, 인명구조, 물질 탐지, 경계구역 설정, 유출물질 방제작업 및 개인보호구 활용 사항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고 있다.

GS칼텍스는 2013년에는 여수산단기업 최초로 무재해 달성을 위해 1만9천㎡의 부지에 '안전훈련장(Safety Training Center)'을 마련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알고, 실제 안전사고 상황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안전훈련장에는 24개 실내·외 훈련코스, 동영상 강의실, 보호구 전시실이 있으며, 임직원 이외에 협력사 관리자 및 근로자 등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또한 GS칼텍스 여수공장은 매월 계층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안전/환경/보건뉴스, 안전/환경/보건정보, 사고사례 등이 포함된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특히 위험작업의 경우, 실습위주의 교육과 인증평가를 실시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입사원의 경우, 보호구, 소방훈련, 비상대응, 휴먼에러 등 60시간 이상을 안전보건교육에 할애하고 있다.

GS칼텍스는 협력사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사 대표를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 안전회의 및 협력사 안전관리자/소장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 산업안전보건협의회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 합동안전점검, 협력사 임시건물 합동 안전점검, TA대정비작업 노사합동 안전캠페인 등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인증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대정비작업 특별안전교육, 출입자 안전/보안교육 및 공종별 작업 안전교육 등 협력사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GS칼텍스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통한 불안전 요소 확인, 중량물 이동 및 용기 출입 등 잠재위험이 높은 고위험작업에 대한 패트롤(Patrol) 우선 실시 및 집중관리, 열작업이나 용기 출입작업에 대한 인화성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규정🞌절차와 불일치한 사항 확인 시 즉시 시정하고, 현장 불안전 요소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는 “Stop Work Authority”를 실행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장치별 부식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위험도를 산정하고, 점검주기를 설정하여 부식에 취약한 구간을 100% 점검하고 있다. 또한 화재/폭발/누출사고를 예방하고, 설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14년 5월 취약설비 진단TF를 구성하고, 고정장치, 전기계장, 회전기계 분야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설비별 점검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취약설비에 대하여 육안검사, 비파괴검사, 건전성 진단 등을 실시하여,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여수공장 제품/원유부두, 해상물류센터 8개소의 입출하 설비, 선박 안전 및 운영관리, 비상대응시스템을 점검하고 2016년까지 시설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의 모든 주요 설비는 점검결과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가 수행되고 있으며, 설비의 운전 상태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누출/부식/균열 등 취약부분 예방 점검 및 위험도에 따른 설비 교체주기 설정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수소 및 유증기로 인한 화재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최초로 LDAR(Leak Detection And Repair)시스템을 도입하여 가연성 가스 누출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각종 최첨단 검사장비(고온용 초음파 두께측정 장비, 자동초음파장비, 감마스캔, 휴대용 현미경 등)를 적용하여 취약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노력**

GS칼텍스는 “GS칼텍스 비상대응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비상사태 발생 즉시 임직원이 수행해야 할 일을 명확히 하고, 보고체계를 단순화시켜, 사고 발생 즉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GS칼텍스는 비상사태를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주민 포함)이 사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고, 화재∙폭발∙정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거나, 생산 및 영업 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고 등으로 정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가동 및 운영기준을 명확히 하여 전사적인 사태 수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본사 주관의 불시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GS칼텍스 여수공장은 개정된 비상대응 매뉴얼을 기반으로 “비상사태 대응 업무 절차서”를 개정하여 비상사태 발생시, 대응조직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다.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GS칼텍스는 자율적인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현장 안전의식 제고 프로그램을 운

영하여 현장 리더, 팀원, 협력사의 위험 인식, 관찰, 코칭 역량을 향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든 구성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안전을 실천하고 위험에 대한 적극적

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문화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GS칼텍스는 현장 안전의식 제고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직책별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지식과 실행 방법을 전달하였으며, 사내 Facilitator를 양성하여 열린소통과 현장 안전문화 창조의 촉매 및 전도사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끝>